

## 開局 藥局 投藥管理에 對한 考察

盧 台 宣

高麗大學校 醫科大學 附屬病院

### 藥學의 使命

藥學의 使命과 目的은 여러가지로 學問的인 目的과 藥學의 應用的인 面에서의 使命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直接的으로는 國民을 爲한 人體에 直接的인 肉體와 精神의 健康을 維持하는데 醫藥品으로 必要로 되는 部面을 擔當하는 理論과 實際를 研修 實行하는 學問이라고 말할 수 있다.

醫藥品으로 人體의 健康을 維持함에는 우선 非健康體를 健康體로 即 疾病의 治療와 非健康要素의 除去와 防止 即 健康維持와 疾病의 豫防이 必要하며 此의 手段으로 藥品이 使用되고 있음은 비단 現代社會에서 비록된 것이 아니며 人類의 生活始初와 더불어 이룩되어 왔으며 따라서 現代의 醫學과 藥學은 太古時代에서부터 不可分의 사이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걸어온 것이다.

그러나 科學의 發達과 더불어 人體와 精神의 複雜性 藥品의 多樣性이 不可避하게 또한 科學의 條件에 따라 一人萬能으로는 不可能하여 自然的으로 醫學과 藥學은 分離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分離는 分離自體를 目的으로한 것이 아니라 協同을 目的으로 한 分擔인 것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患者를 醫學과 藥學을 別途로 履修한 專門人이 自己의 知識과 技術을 發揮하여 보다 더 安全하게 治療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本質的으로 病院과 藥局은 하나의 患者를 處理함에 있어서 同等한 立場에서 協力하여야 한다는 使命이 負荷되어 있음은 다시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韓國에서는 이러한 點을 認識하면서도 實際로는 患者하나를 놓고 마치 醫師와 藥師 各自 自己에만 計劃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思考와 立場을 고집한다는 것은 本來의 醫學과 藥學의 使命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 어긋남이 여러 問題를 內包하고 이 問題點이 直接으로 國民에게 影響을 주고 있음은 否認치 못할 現實이라 하겠다.

우리 社會에 完全無缺한 것은 없다. 보다 더 完全함을 指向하여 努力하는 것이 人間이며 우리의 當面된 課題라고 생각할 때에 이 現實에서 우선은 實際와 制度를 分離해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卽 醫와 藥이 制度的으로 分離된 協同을 바라나 이러한 制度가 아직 이루어 지지 못한 現實에서 가장 適切하고 安全한 方向을 모색하여 國民의 피해와 不安을 가장 적게 축소시키는 길을 모색하면서 制度的의 改善을 努力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우리는 藥局에 對해서 可能限의 努力을 해보자는 것이다.

## 藥學과 藥局

藥局的 基礎은 藥學에 있다. 이것은 反對로 藥學없는 藥局은 있을 수 없다는 말과도 同一한 이야기다.

藥局은 醫藥品을 投與하는 場所이다. 藥局藥師는 醫藥品의 投與者이다. 따라서 藥師와 醫藥品은 떼어 놓을 수 없는 存在이며 藥學은 藥師를 養成하는 限 醫藥品에 對한 知識을 爲先的으로 教育하는 동시에 그 나라 藥師가 그 나라 制度下에서 그 나라 方式으로 行動함에 가장 올바른 指向性과 國民에 가장 安全한 醫藥品을 投與할 수 있는 方式과 內容을 教育하여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重要한 教課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韓國의 藥學은 어느 나라 藥師를 養成하는 教育을 하고 있는가를 再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 藥學은 藥學의 本質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으며 이에 對한 教育을 하고 있으나 이 教育만으로 韓國의 藥師가 行動할 수 있으며 現實에 適應되는 是는 度外視됨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藥師의 大多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對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藥局的 開局을 좀더 깊이 檢討하고 研究하고 一生을 藥師로서 藥局에 몸을 바치고 여기에서 人生을 살아 나갈 하나의 人間 藥師를 좀더 깊이 알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는 바이다.

다음 開局하고 있는 藥師의 立場에서는 이미 學校의 教育時節은 지난 것이다. 學校教育이 잘됐건 못됐건 간에 그 바탕을 힘입어 藥師가 된 以上 現實에 適應되고 不備한 點을 補完해나가야 할 사람은 自己 自身이며 이 努力은 學校의 卒業年限과 같은 時間의 制限없이 一生을 두고 그 業에 從事하는 限 不斷한 努力이 傾注됨으로서 大學을 나온 價値와 代價를 바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藥品을 하나의 商品으로 利潤追究의 道具로 教育하는 나라는 없다. 醫學에서도 마찬가지로다. 醫科大學에서도 患者에게서 돈받는 方法을 가르치는 뜻은 없다. 그러나 經濟와는 떠러질 수 없는 어떤 面에서는 經濟가 現代生活에서 優位를 차지하는 人間生活에서 이러한 最高教育機關에서 이를 無視하다 싶이한 것은 無視가 아니라 그 自體의 藥이 自動的으로 經濟問題를 解決해 주는 要因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다. 卽 藥師가 藥品을 올바르게 相對方에게 가장 알맞고 安全하게 投與된다면 그 報酬는 自動的으로 얻어지는 職業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다. 實際로 가장 發達한 醫藥制度下的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能히 얻을 수 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이러한 것이 잘 안되어 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는 이 業에

對한 根本的인 再檢討가 必要한 것이 아인가 생각된다.

韓國의 藥局開局은 그 바탕으로 하고 있는 教育, 實施하고 있는 制度, 藥局自體의 運營方法에 再檢討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對한 對策은 教育은 學校가 主管이 되고 制度는 行政面에서 主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問題를 論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며 藥局의 運營面에서도 韓國의 藥局이 하여야 할 하나의 補完을 講究해 보고자 하는 바이다.

### 投藥을 爲한 基本調査

韓國에서의 藥局을 開局運營한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같이 그 基本教育과 制度의 不一致로 因하여 實際運營에 애매한 點이 있음은 勿論이려니와 當황하게 하는 點이 있다.

첫째로 藥局에 備置하여야 할 藥品의 多樣性에 이에 對한 公的인 說明書 乃至는 解說書가 不備하다는 것이다. 또한 雇客에 對한 一定한 規準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處方等を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全部가 다 藥局藥師에 依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投與된 藥品에 對하여 責任을 질 수도 없고 質질수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問題는 每日每日 無事히 지나기만 바랄 뿐이며 適當主義의 投藥은 病이 治療되어도 그만, 안되어도 그만인 現實에서 藥禍事故 投與 藥의 耐性助長 乃至는 알든 모르는 間에 國民保健의 將來에 어떤 危險性마저도 內包된 運營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開局하여야만 하는 現實을 外面하고 無視할 수 없는 以上 여기에 對한 할 수 있는 限의 對處策과 그 方途를 講究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雇客에 對한 分類가 必要하다. 疾病의 治療인가 單純한 疾病豫防인가? 特殊한 衛生目的인가 健康의 維持인가 하는 分別眼을 가지도록 하고 이에 對한 主要對處 目標를 세워야 하겠다. 雇客은 뚜렷한 目的 意識下에 藥局을 찾았다 할지라도 一段 藥局에 와서 藥師와 對談하는 가운데 또는 藥을 撰擇하는 가운데에 相當히 自己의 첫 目的意識이 흐려진다. 따라서 藥局藥師는 이럴수록 더욱 確信을 줄 수 있는 目的과 對象意識이 強해져야만 할 것이다. 다음은 雇客에 對한 投藥根據를 確實히 하여야 할 것이다.

醫師가 患者의 疾病을 추적해 나가는 제일 먼저 取하는 것이 患者의 現상태와 過去의 病歷의 有無이다. 그 다음 가장 重要한 것은 그 患者가 한번 올 患者든 계속 찾아올 患者든 間에 반드시 診療記錄을 한다는 것이다.

藥局에서 藥品이 그저 金錢과 交換하는 一個의 商品에 지나지 않다는 觀念을 없애기 爲한 努力이 앞으로는 더욱 必要로 할 것이며 이로써 藥局이란 病을 治療하는 첫 豫防의 機關으로 認識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여기 提議하고 싶은 첫 方法은 投藥을 爲한 基本調査이다.

그 方法의 一例로서,

### 健康狀況의 基本調査

患者가 우선 호소하는 病은 무엇인가, 其他 血壓, 便秘의 有無, 持病, 精神 狀況 食慾等을 藥品에 對한 既往經歷

아레르기性的의 有無, 特定 藥品에 對한 副作用의 經驗有無 等

#### 既服用 藥品

이미 他藥을 服用하고 있는지 現在疾病以外的 他 治療劑를 使用하고 있는지 어떠한 特定 食事を 取하는지 等

이러한 基本調査를 爲한 카드를 반돌어 備置해 爲으로써 藥師自身的 投藥 方向을 樹立함과 同時에 患者에서 對하여서도 藥局이 또한 藥師가 自己疾病에 關心과 그 藥師가 投與한 藥品에 對한 信賴性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同時에 이러한 것은 現在 우리나라 實情에 限한 最善의 方法이며 學問으로서도 이런 것이 즉 臨床的인 藥學의 基礎이며 둘째로는 患者와 藥品의 關係를 明確히 함으로써 藥禍事故에 對한 不透明한 嫌의를 避할 수 있으며 때로는 故意的인 患者의 투정을 防止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이러한 作業의 施行하고 있는 곳과 試圖할 段階에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것이 아주 普遍化되어 하나의 藥局開局行爲의 必須業務로 된다면은 患者는 당연히 藥局이란 病院과 비슷한 疾病治療의 實行이지 商品的인 藥品의 交換所가 앞임을 認識할 것이다.

學問과 營業이 兼行한다는 意識뿐만 아니라 實行表現한다는 것이 매우 重要하며 同時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이행 될때에는 藥局에 對하여 再 檢討가 必要하며 現實을 고집하는 생각으로는 不可能하며 藥局의 施設, 場所의 넓이, 所要되는 時間과 人員 等이 改偏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教育과 制度가 自然的으로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社會의 모든 것이 改革되고 發展하는 過程으로 再檢討되어 果敢히 一部の 희생을 무릅쓰고도 施行되고 있는 이 때에 藥局만이 從來의 舊態依然으로 存在하며 더욱이 患者를 直接 對面하여 投藥하고 있는 韓國의 藥局은 어떤 面에서는 醫藥이 分業된 先進國의 制度 보다도 더욱 複雜性을 內包하고 있는 事實을 안이하게만 받아드리려는 現開局 藥局은 시련을 격지 않을 수 없는 立場에서 버서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開局藥局이 나혼자만의 營業場所라는 觀念은 하루마에 버서나야 하겠다. 開局藥局은 그나라의 藥界의 얼굴이며 學問과 制度의 表現의 先端이다. 따라서 教育과 行政의 未備點이 있다면 언제까지나 기다린다는 것은 他에 依存한다는 依他心만 걸려지며 不平과 不備에 지체를 뿐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는 이미 數十年을 이런 狀態로 지내온 것을 앞으로 언제까지 延長해 나갈 것인지 남이 못해준다면 우리 自身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인지 復雜하니 不可能만을 되풀이 하고 지낸다는 것도 이제는 滿期에 차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한편으로는 韓國의 開局藥局이야말로 臨床藥劑學을 具現이행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位置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다. 勿論投藥管理만이 臨床藥劑學의 全部는 아니지만 投藥管理에 比重이 높은 것만은 事實이다. 따라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投藥面에서 學究的으로 그리고 體系있는 活動을 함으로서 우리의 使命이 遂行될 것이라고 確信하는 바이다.